

| | | |
|-----------------------------|-----------|-----|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 다함께 |
|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 | 다함께 |
| 기도 Prayer | | 강민선 |
|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 | 다함께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눅 7:36-50 | 다함께 |
| 말씀선포 Sermon | 눈물로 씻은 발 | 유형선 |
| *찬양 Praise | | 다함께 |
|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 | 유형선 |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 | |
|--------|-------|
| 7월 28일 | 8월 4일 |
| 윤하나 | 김주연 |

예배시간안내

| | |
|----------|----------------------------|
| 주일예배 | 오후 2시 (본당) |
| 청소년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친교실) |
| 수요성경공부 |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
| 아침묵상 |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요한보다 큰 자

본문 : 눅7:24-30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시선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졌음을 직감하신 예수님은 즉시로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대답을 하시는데 첫번째 질문은 너희가 광야에 나가 이유가 무엇인냐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정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간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나갔냐고 질문하십니다. 혹시 광야에 있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갈대는 흔들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우리 상황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교회 왜 나갔냐는 것입니다. 무얼 기대하고 나갔냐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그곳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러 나갔냐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화려함이라는 수식어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냐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도 연결됩니다. 너희는 광야에 참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고 물으신 후에 만약 그렇다면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이 이 시대에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성자의 반열의 오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선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중에 세례요한처럼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동안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쌓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지처럼 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중심으로 믿고 받아드린다면 우리가 입은 새 옷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거저 받았습시다. 은혜로 받았습시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